

딥러닝 기반 Accelerated Capture 이미징 시스템
어떤 순간에도 준비된 당신만의 TEAM



인간의 감각이 딥러닝과 만나다

EOS R5 Mark II



寫壇

VOL. 581 www.kappa.co.kr

2026. 6 VOL. 581



kppa 1955
PRO portrait

2026 6

효성카메라

신용/정직/친절

최신 카메라 교환·판매

효성 카메라는 니콘·캐논·소니 전문 판매점입니다.
스튜디오 장비의 모든 것 각종 중고 카메라 매입합니다.



hscdna.com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alibrite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 ✓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 ✓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 ✓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 ✓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calibrite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킷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킷
3. 그레이 밸런스 타킷
4. 화이트 밸런스 타킷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OFFLINE STORE
효성카메라DnA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4



CUSTOMER CENTER
TEL : 02 - 752 - 9599
FAX : 02 - 771 - 6620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7:00
주말 : 토요일, 공휴일 정상영업
일요일 : 휴무

"사진의 역사, 사진진흥법의 뜻을 달고 더 높은 미래로 날아오릅니다."

존경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대지가 싱그러운 초록의 생명력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계절입니다.



지난 5월호 협회지를 통해 취임 후 첫 안부 인사를 올린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의 깊이를 더해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의 길목에서 우리 협회지 <寫壇(사단)>을 통해 회원 여러분과 다시 마주하게 되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회가 새로이 솟구쳐 오릅니다.

전국 각지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가장 찬란한 순간과 대한민국의 오늘을 기록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사진 문화는 어제보다 오늘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인들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이자 간절한 염원이었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사진진흥법)'이 마침내 지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역사적인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진업은 문화, 예술, 기록,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적 기반이 없어 국가 정책의 변동에서 단순한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취급받는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진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책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진서비스업이 단순한 생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사진발전추진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던 날,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주셨던 회원 여러분의 눈물겨운 정성이 첫걸음이 되었고, 전임 회장님들과 고문님, 자문님들의 든든한 뒷받침, 그리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이 닳도록 발로 뚫은 사진진흥위원회와 관계자여러분, 전국의 회원여러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이 기적 같은 법 제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프로 사진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빗속을 뚫으며 비회원 사진관을 찾아가 "우리가 힘을 모아야 우리의 밥줄을 지킬 수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원을 증강해 주셨던 선배 임원분들의 그 뜨거운 '협회 사랑'의 정신이 마침내 법률 제정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회를 위해 온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전국의 모든 사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특정 개인의 공로가 아닌, 우리 협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위대한 연대의 승리'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법적 울타리는 마련되었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진화와 딥페이크 문제,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각 매체 환경과 녹록치 않은 경제적 불황은 우리 스튜디오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오히려 우리 프로 사진가들의 흔들리지 않는 장인정신과 창의력을 세상에 더욱 눈부시게 증명할 '최고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정교하게 흉내 낼지라도, 피사체의 깊은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삶의 희로애락을 따뜻한 빛과 그림자로 길어 올리는 우리 프로 사진가들의 '인간적 감각과 감동'은 결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과거의 아날로그적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과감하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도태를 의미합니다. 변화 자체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회입니다.

약속드렸던 공약과 실천 과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로 만들어 가며, 회원 여러분의 주머니가 든든해지고 스튜디오마다 활기가 넘쳐나는 '행동하는 협회, 살아 움직이는 협회'를 기필코 증명해 보이고,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현장을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적 도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진흥법이라는 거대한 뜻을 달고, 대한민국 사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국프로사진협회와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푸르른 햇살처럼, 회원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제40대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 경 희 올림

UNCOVER

Premium Lifestyle Camera Bags

Change from Camera to Daily Mode. Instantly.

촬영과 일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다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함께 만드는 사진인의 새 역사



존경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기록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사랑하는 경남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지회장 천우철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카메라 렌즈 너머의 세상은 늘 변화하지만, 최근 우리 사진 업계가 겪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고 매섭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위기'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나아가야 할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경희 협회장 체제는 우리 협회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이나 아쉬움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속하여,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진취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 새 집행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질적인 회원 권익 보호와 수익 창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퍼스널 컬러", "입체복원사진 자격증 교육", "6·25 영웅사진", "청춘어게인" 등의 사업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진인들이 전문성을 다시금 인정받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지회 역시 이러한 본협회의 비전에 발맞추어, 소속 회원들께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을 포착하고, 한 시대의 기록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프로사진가'입니다.

우리 경남지회는 새 집행부가 추진하는 변화의 행보에 든든한 조력자로서 기꺼이 손을 거들겠습니다. 본협회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현장의 회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중앙회의 비전에 힘을 보태며 지회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경희 협회장님께서 강조하신 **"혼자 가면 길을 만들지만,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든다"**는 말씀을 다시금 깊이 새겨봅니다. 거친 풍랑을 뚫고 나가는 힘은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맞잡은 손에서 나옵니다. 변화의 물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협회의 새로운 행보에 따뜻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넘어 새롭게 비상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역사를 우리 경남지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갑시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창작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한국프로사진협회 경남지회장 **천우철** 올림

Contents

Korea Professional
Photography Association
Magazine



권 두 언

- 04 이경희 회장
- 07 경남지회장 천우철

K P P A 소 식

- 10 제34회 KOBA 전시회 참관
- 14 김용성 선생님 간담회
- 16 분과위원회별 릴레이 간담회
- 18 교육자격위원회 춘계세미나
- 20 사진진흥법 제정
- 22 제13회 초대작가 · 제32회 추천작가 학술세미나 및 촬영대회
- 24 작가제도위원회 호남권 출사

K P P A 인 상 사 진

- 26 강민정 작가
- 28 류수민 작가
- 30 박용호 작가

K P P A 지 회 소 식

- 32 서울지회 정책간담회
- 33 2026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춘계산행

K P P A 탐 방

- 36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이취임식
- 38 청 스튜디오 최병희 대표
- 40 미디어 PNP 김용우 대표

K P P A 농 수 산 물 소 개

- 44 전성환 제주지회 고문의 감귤이야기

K P P A 풍 경 사 진

- 46 김갑수 작가
- 48 이용일 작가
- 50 이한우 작가
- 52 이희춘 작가

K P P A 타 임 머 신

- 54 오너와 기사입장차이

K P P A 교 육

- 56 국가보훈증 사진규격
- 58 1982년 사진, AI로 다시 숨 쉬다
- 60 Photoshop(마스크헤어)
- 62 인공지능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
- 62 사진 복원 스토리

편 집 후 기

- 66 원고 모집

ABOUT
THE COVER

작품제목 **흘날리는 서약**

작가노트 흰 베일은 사랑이 지나온 시간처럼 길게 흘러지고,
붉은 장막 앞에 선 그녀는 주인공이 된다.



류수민 작가

감동사진관 대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2016년 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Korea 작품상 수상

2015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Medal

2015년 대한민국 스타예술대상 <사진부문 수상>

2014년 제4회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사진작가부문대상

2013년 월간문학세계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다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상 수상

寫壇

2026. 6. VOL. 581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주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대표번호 02-4545-600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 kppa1955 / PW 1234)
계좌번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발행인 이경희 회장
발행일 2026년 6월
창간일 1977년 9월 /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편집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변준섭 사무처장, 김용우 홍보위원
인쇄·디자인 (주)미디어피앤피 02-903-2773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 사진 및 기타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희 회장 및 임원진, 방송·영상 산업 최신 흐름 탐방 제34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 (KOBA) 참관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진 이해승 협회주재기자



▲ Canon Korea

본 협회(이경희 회장)는 지난 2026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4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KOBA 2026)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방송·영상·사진·음향·조명 산업의 최신 기술과 장비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로, AI 기반 영상기술과 차세대 미디어 솔루션들이 대거 공개되며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 Nikon Imaging Korea



▲ FUJIFILM Korea

이번 행사에는 이경희 회장을 비롯하여 김동한 총무위원장, 나영균 기획위원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이해승 협회주재기자, 이승호 총무이사, 변준섭 사무처장 등 협회 임원진이 13일(수요일)에 참관하였다. 회장 및 임원들은 사진·영상·조명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직접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Canon Korea, Nikon Imaging Korea, FUJIFILM Korea 등 글로벌 카메라 브랜드를 비롯해 Epson Korea, Synology, SMDV, 유쾌한생각, 세기P&C, 벤로코리아, 오로라라이트뱅크, 루미넥스, Peta Data, (주)제아 부스를 방문하며 최신 촬영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솔루션, 조명장비 및 AI 활용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카메라 메이저 브랜드인 캐논과 니콘 부스에서는 AI 기반 자동 초점 기술과 고화질 영상 촬영 기능이 대폭 강화된 최신 기종들이 선보였으며, (주)후지와 엠손 부스에서는 사진 출력과 인화 분야의 최신 기술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관리 솔루션 업체 시놀로지 및 Peta Data 부스에서는 사진관의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소개되어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Epso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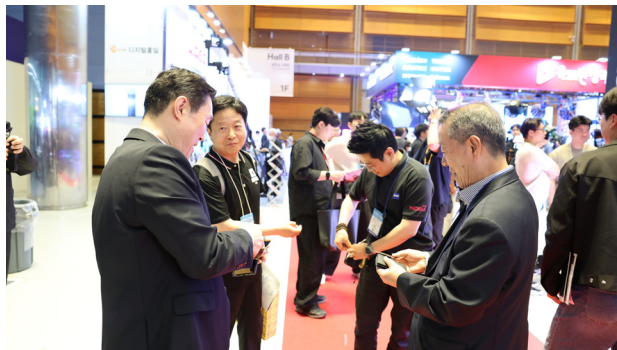
▲ 루미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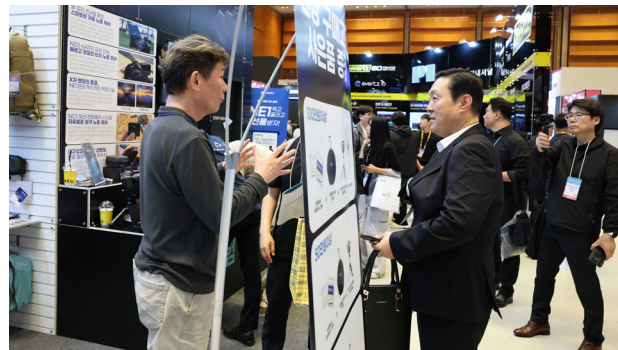
▲ SMDV



▲ 유쾌한생각 임원과 함께



▲ 세기P&C(주)



▲ 주식회사 벤로코리아



◀ 오로라 라이트뱅크

조명 분야에서는 SMDV, 오로라라이트뱅크, 루미넥스 등의 부스에서 스튜디오 촬영에 최적화된 최신 조명 장비와 LED 기술의 진화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유쾌한 생각과 세기P&C(주), (주)벤로코리아, (주)제아 부스에서는 사진 촬영 보조 장비와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들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 Synology

이경희 회장은 참관 후 “최신 기술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라운 만큼, 우리 협회와 회원들도 이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참관에서 만난 주요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하였다.



▲ Peta Data



▲ (주)제아

급변하는 사진·영상 기술 환경 속에서 협회 임원진이 직접 발로 뛰며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업계와 소통한 이번 KOBA 참관은, 40대 집행부의 현장 중심 행보를 잘 보여주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사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는 협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용성 선생님 간담회

“조명에 묶인 사진, 틀에 갇힌 사진은

2026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임원진과 김용성 선생님과 뜻깊은 만남이 이어졌다. 5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OPA 전시회를 참관한 뒤, 이경희 회장, 김천식 수석부회장과 협회 임원진은 최병희 대표가 운영하는 청스튜디오를 방문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후 약속동 소재 하누에뜰에서 대한민국 사진계 원로인 김용성 선생과 식사를 함께하며 사진 철학과 시대 변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청스튜디오 방문

이 자리에서 이경희 회장은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김용성 선생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선물과 함께 존경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어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장경환 자문, 한장훈 홍보위원장, 최병희 대표가 다시 김용성 선생을 찾아 식사와 선물을 전하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김용성 선생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온 사진 철학과 프로사진인이 가져야 할 본질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선생은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며, 고객의 감정을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사진관 문화에 대해 “조명에 묶인 사진, 틀에 갇힌 사진은 더 이상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인상사진이 지나치게 정형화된 조명과 포즈에 의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관은 오랫동안 ‘이렇게 찍어야 한다’는 방식 속에 스스로를 가둬왔다”며 “블랙 배경, 화이트 배경, 램프 조명 같은 형식이 기준이 되었지만 살아 있는 사람을 담는 사진은 그림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한 빛은 원라이트에서 나온다. 조명이 많아질수록 진실성이 깨진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 아니다”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또한 “프로사진인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의지를 사진 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진을 잘 찍는다는 광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지는 사진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진관은 가격표를 붙여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성 선생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의 ‘대화’와 ‘감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했다. “웃으세요”라는 지시보다 고객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프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때로는 고객과의 대화 속에서 눈물을 끌어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인생과 시간을 사진 안에 담아내는 것이 사진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모두가 똑같은 사진을 만들면서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김용성 선생의 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특히 최병희 대표를 비롯한 후배 사진인들에게는 기술을 넘어 자신만의 사진 세계와 철학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한국 프로사진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진 자리였다. 시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도 결국 사진의 본질은 사람과 감정, 그리고 철학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위쪽부터 이경희 회장 인사말, 스승의날 방문



▲ 김용성 선생님 인사말

이경희 회장, 위원회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4월 한 달간 분과위원회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민간자격증 도입 및 회원 복지 강화 등 실천적 혁신 방안 모색

| 글 총무위원장 김동한
| 사진 협회주재기자 이해승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가 2026년 4월,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 위원회와 머리를 맞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기획, 작가제도, 교육자격, 복지정책 등 협회의 핵심 기구들이 참여하여
사진 업계의 권익 향상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미래 역량 강화: “AI 스마트폰 활용 등 민간자격 제도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발맞춘 신규 민간자격 제도 도입이다. 기획위원회와 교육자격위원회는 공통적으로
‘AI 스마트폰 활용 강사’ 및 ‘입체 복원 사진’ 등 현대적 수요를 반영한 자격증 신설을 건의했다.

기획위원회: 지자체 교육과정 강사 활동이 가능한 스마트폰 사진 강사 자격 등록 제안

교육자격위원회: 사진 복원 및 입체 복원 과정의 자격 교육을 세미나와 연계하여 협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강조

이경희 회장은 이에 대해 “세미나 시 입체 복원 과정을 활용하는 등 실무적인 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긍정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 작가 권익 및 위상 제고: “초대작가 세미나와 독도 방문 기회 제공”

작가제도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온양 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제13회 초대작가 및 제32회 추천작가 학술세미나’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고했다.

전폭적 지원: 협회는 촬영대회 수상자에게 ‘독도 방문’ 기회를 제공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행사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제도 정비: 작가 현황을 정비하고 초대작가 자격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여 더욱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작가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 실질적 회원 복지: “어도비(Adobe)와 업무 협약 및 저작권 보호”

“복지정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쏟아졌다.

공동구매 추진: 어도비 포토샵 AI 기능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할인율 극대화를 위해 어도비 측과
직접 미팅 (4월 30일 예정)을 진행한다.

저작권 계몽: 어도비사의 법적 권고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저작권 법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생활 밀착형 복지: 전체 회원 경조사에 협회 조기 및 축기를 지원하는 방안과 우수 작품을 호텔 객실에 전시하는
마케팅 방안 등 다각도의 지원책이 논의되었다.

■ 소통과 화합의 행보: “현장이 답이다”

이경희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위원회의 제안을 사무처에 즉시 전달하고 실천적인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 사진 촬영 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원회와 함께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논의된 안건들이 회원들의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40대 敎育資格委員會

교육자격위원회 춘계세미나 盛了

국제세미나 복기와 내년 준비 방향 모색

| 취재 류수민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사진 허재준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교육자격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연원석 이사가 운영하는 청주 크림스튜디오에서 춘계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하계세미나 준비 방향과 교육자격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영진 위원장, 정태영 부회장, 연원석 이사, 정원진 간사, 박해승, 김선아, 강민정, 전희정, 김영석, 허재준, 유현수, 류수민, 안수민, 윤영, 이은주, 심홍구, 이정훈, 성광용 위원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자리에는 제40대 이경희 협회장이 함께하여 협회의 미래 비전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협회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자격증 제도 활성화, 지역 사진관 활성화 조례 추진, 협회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퍼스널 컬러, 입체 복원, 스마트폰 강사 과정 등 사진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독도 촬영 상품권 2매가 증정되었으며, 안수민 위원과 유현수 위원이 선정되어 6월 중 독도 촬영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하계세미나 관련회의에서는 4월 말까지 강사 라인업을 정리하고, 5월 중순까지 강사 컨택 및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6월 말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일정표를 확정하고, 7월 20일까지 사단기 게재 내용과 물품 관련 사항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7월 말에는 추가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며, 8월 23일에는 행사 준비를 위해 선발대가 현장에 먼저 도착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세미나의 오프닝 강의로는 지난해에 이어 '고수에게 묻는다 2'가 제안되었다. 해당 강의는 사진관 운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AI, 마케팅, 카메라, 조명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강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AI, 사진 복원, 쇼츠 영상 제작, 홍보, 전통 촬영 기술 등 최근 사진관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강의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 왼쪽부터 독도촬영 참가권 수여, 이경희 협회장 격려사



위원별 주요 의견도 활발하게 오갔다. 정태영 부회장은 자격증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질은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의 입장과 대외적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력과 자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프닝 강의는 교육자격위원장의 색깔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원석 이사는 사진 업무를 넘어 회원들이 자녀의 도움 없이도 일상에서 AI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회원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교육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아 위원은 AI를 활용한 사진 복원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실제 복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하우를 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위원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AI 보정 사례와 다양한 에이전트 툴을 소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속광을 활용한 촬영과 현장 실습 중심의 강의가 추가된다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수민 위원은 오프닝 강의로 '고수에게 묻는다'를 추천하며, AI 강의뿐만 아니라 조명, 프로필 촬영, 가족사진 등 실제 사진관 운영에 필요한 전통 촬영 기술 강의도 함께 보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새로운 기술 교육과 기존 사진관 운영 기술이 균형 있게 구성될 때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이후에는 선세리 강사의 '사진작가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전략과 실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사진작가가 변화하는 AI 환경을 이해하고, 실제 촬영 업무와 홍보 과정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시작으로 AI 저작권 이해, 윤리적 사용 기준, 사진작가의 책임 등 AI 활용에 앞서 필요한 기본 개념을 다루었다. 이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와 작성 원리, 키워드 전략을 비롯해 사진 프롬프트 작성에 필요한 구도와 조명, 색감과 톤, 카메라 설정 등 실무적인 내용이 소개되었다.

또한 AI 영상 제작 자동화, 숏폼 콘텐츠 제작, 모션 효과 적용 방법과 함께 소셜미디어, 포트폴리오, 홍보 및 마케팅 자동화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어져, 사진관 운영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춘계세미나 및 간담회는 단순한 행사 준비 회의를 넘어, 변화하는 사진 시장 속에서 교육자격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또한 생성형 AI 교육을 통해 사진작가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업무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자격위원회는 2026년 하계세미나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과 협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진진흥법 제정!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진진흥법은 우리 사진인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결실입니다.
이제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프로사진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진진흥법 제정**

협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01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대응**
 - 회원 의견을 모아 문체부에 적극 제안
 - 협회가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 반영
- 02 정책협의체 및 공청회 참여**
 - 사진산업 현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
 - 협회 주도의 간담회·토론회 개최
- 03 교육·보수교육 체계 구축**
 - 개인정보, AI 시대의 윤리, 고객 응대 등 실무 중심 교육 강화
 - 협회 교육기관 지정 추진
- 04 회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강화**
 - 불공정 거래, 저작권 침해, 초상권 분쟁 등 법률·정책 지원
 - 공제제도, 단체보험 등 복지사업 확대
- 05 사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사진서비스업 정의 명확화, 등록·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
 - 사진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참여
- 06 대외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
 - 사진의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 홍보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

- 01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책 모색
 - 회원 중심의 사업과 정책 추진
- 02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 최신 트렌드, 기술 교육 제공
 - 자격/인증 제도 도입 추진으로 회원의 전문성 제고
- 03 정당한 대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표준계약서 보급 및 사용 확대
 - 적정 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04 사진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제고**
 - 사진의 공익적 가치 홍보
 - 사진문화행사, 공모전, 전시 등 다양한 사업 전개
- 05 소통과 참여로 더 강한 협회 만들기**
 -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
 - 지역 지회 활동 활성화 및 정보 공유

“ 법은 시작일 뿐, 우리의 노력으로
사진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협회와 회원이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사진진흥법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협회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세요!

 **한국프로사진협회**

하나되어, 더 강하게!

사진의 가치를 높이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한국프로사진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진흥법 제정 이후, 한국프로사진협회의 다음 과제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과 실천 과제

| 글 사진진흥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1. 제정의 의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진진흥법이 마침내 제정된 것은 오랜 시간 사진계가 기다려 온 역사적 결실입니다. 이제 사진은 단순한 서비스업의 범주를 넘어, 국가가 책임 있게 육성해야 할 문화와 산업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 곧바로 현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시행령·시행규칙, 기본계획, 예산사업, 교육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1~2년이 사진서비스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2.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도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협회는 이제 ‘법이 만들어졌다’는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사진서비스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보수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디지털 신뢰체계, 우수사례 시상 등이 실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특히 증명사진, 학교 사진, 웨딩사진, 상업사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사진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등록·인증 체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협회가 먼저 기준을 제시할 때,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3. 회원 권익증진의 핵심은 교육과 신뢰입니다.

앞으로 사진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벌칙 조항이 법에 들어간 만큼, 협회는 보수교육 체계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바뀌는 제도와 디지털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사진윤리·AI 활용·답페이지 대응·고객정보 관리까지 포함한 실무형 교육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협회가 회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권익 보호 수단이 될 것입니다.

4. 협회는 회원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회원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 보여도, 협회가 모으면 정책이 됩니다. 지역별 현장 애로, 가격 경쟁 문제, 사진관 운영의 어려움, 신분증 사진의 신뢰성 문제, AI 시대의 위기 등은 모두 회원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협회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문체부와 국회,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산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근거 있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현장 경험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5. 협회의 미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자리매김에 있습니다.

사진진흥법이 제정된 지금, 한국프로사진협회는 단순한 친목·행사 중심 조직이 아니라 교육기관, 정책제안자, 산업표준 제시 기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협회가 정부 위탁사업, 인증제 운영, 전문교육, 지역 사진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근 실무조직, 법제 대응 TF, 교육기획단,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회원의 권익도 커지고, 사진서비스업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집니다.

맺음말

사진진흥법은 사진인들의 오랜 염원이 제도화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그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협회가 앞장서서 제도 설계에 참여하고, 회원의 교육과 권익을 지키며, 사진산업의 신뢰와 품격을 높여 나갈 때 비로소 사진진흥법은 진정한 성과가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프로사진협회가 더 큰 책임과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할 시간입니다.



제13회 초대작가·제32회 추천작가 학술세미나 및 촬영대회 盛了 사진인의 품격과 열정, 온양에서 다시 하나 되다

| 취재 서현호 작가제도위원
| 사진 이해승 협회주재기자

작가제도위원회(위원장 임병학)가 주최한 「제13회 초대작가 및 제32회 추천작가 학술세미나 및 촬영대회」가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충남 온양관광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초대작가와 추천작가들의 창작 역량 향상과 사진문화 발전, 그리고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협회 임원과 초대·추천작가들이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이정휘 작가제도이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국민 의례와 함께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배 사진인들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졌다. 시상에 앞서 지난 작가패 시상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조광희 작가(추천작가 제989호)에 대한 추천작가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난 제31회 추천작가 촬영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 왼쪽부터 정사회 이정휘 작가제도 이사,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대회사, 이경희 협회장 격려사



▲ 왼쪽부터 프로인상사진 추천 작가 조광희, 금상 이병덕 작가, 동상 박남국 나영균 작가



▲ 촬영지도위원 신원재/김현호/강호/서현호

금상은 파스텔스튜디오 이병덕 작가가 수상하였으며, 은상은 림스튜디오 강행림 작가가 차지했다. 동상은 청스튜디오 박남국 작가, 열림문화이음 나영균 작가, 바오밥스튜디오 박진우 작가에게 돌아갔으며, 가작에는 마이스튜디오 강석민 작가와 153스튜디오 이성열 작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입선 수상자들에게도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다. 촬영지도위원 위촉장은 신원재, 김현호, 강호, 서현호 지도위원이 추천작가 촬영대회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와 감성을 담아내는 예술”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작가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희 회장

역시 격려사를 통해 “한국프로사진협회는 대한민국 대표 사진 브랜드로서 회원들의 자긍심과 품격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참석 작가들을 격려했다.

행사 기간 중에는 학술세미나와 촬영 실습, 화합의 밤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으며, 공식 후원사인 디엔온, 포토천지, 카메라대학병원의 협찬 아래 더욱 풍성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강의를 맡은 이승주 강사와 이창준 강사에게는 협회 발전과 작가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둘째 날 진행된 폐강식에서는 세미나 전 과정을 수료한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대표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초대작가 대표는 김경환 작가가, 추천작가 대표는 이성열 작가가 각각 수료증을 전달받았다.

폐회사를 맡은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은 “1박 2일 동안 함께한 모든 시간이 협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성장과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 및 촬영대회는 단순한 교육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프로사진인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협회는 앞으로도 작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왼쪽부터 이승주 강사, 이창준 강사, 만찬



작가제도위원회 호남권 1박 2일 작품 촬영

보성 녹차밭과 초암산 철쭉을 담으며 회원 간 화합과 작품 연구의 시간 가져

| 취재 서현호 작가



◀보성 녹차밭 촬영 및 단체 기념 사진



작가제도위원회(위원장 임병학)는 2026년 5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권 작품 촬영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촬영은 자연 풍경과 계절의 빛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회원 간 교류와 작품 연구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째 날인 5월 5일에는 전남 보성 녹차밭 일대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참가 작가들은 보성 녹차밭의 푸른 능선과 석양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내며 작품 활동에 집중하였다. 이어 저녁 식사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촬영 기법과 작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5월 6일 새벽에는 초암산 철쭉 군락지 일출 촬영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새벽 이른 시간 숙소를 출발해 용추 주차장을 거쳐 약 1시간가량 산행 끝에 정상에 올라, 오전 5시

31분떠오르는 일출과 철쭉이 어우러진 장관을 카메라에 담았다. 현장에서는 자연광의 변화에 따른 노출과 색감 표현, 풍경 속 인물 배치 등 다양한 촬영 연구가 이어졌다.

이번 촬영 행사에는 호남권의 김현호, 김동민, 서현호 작가를 비롯해 서울권의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이한우 작가제도 이사, 이희춘 위원, 정세화 위원이 함께하였다. 특히 초암산 녹차밭 촬영을 위해 현장을 세심하게 안내한 김현호·김동민·서현호 작가의 배려에 참가자들의 감사가 이어졌다. 또한 촬영 일정 중 김현호 위원이 준비한 장어탕 점심 식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참가 작가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촬영하며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회원 간의 우정과 협회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호남권 작품 촬영은 단순한 출사 행사를 넘어, 자연과 사진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한국프로 사진협회 작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되었다.



www.kapp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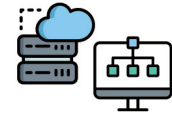
촬영부터 비대면 셀렉, 컨펌, 추가수익까지

모두스쿨 하나로 완벽하게



스마트촬영 & 자동네이밍

- QR보드 or 태블릿 촬영으로 데이터에 학생 정보 매칭
- 파일명 노가다 탈출! 파일명 변환 1초 컷
- 엑셀 명렬표 기반 생성으로 수작업 오타 완벽 방지



대용량 일괄 업로드 & 자동 분류

- NAS 연동으로 수천 장의 고화질 사진도 한 번에 일괄 업로드
- 학교·학생별 자동 폴더 분류로 이메일/웹하드보다 압도적 편리함
- 번거로운 수동 작업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 정리 끝



비대면 셀렉 & 컨펌

- 학생별 계정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셀렉
- 스튜디오, 학교가 실시간으로 결과 공유 및 확인 가능
- 수정 요청 및 소통을 위한 메모 기능 탑재



추가수익

학부모 원본판매

- 민원·결제·CS 모두스쿨 전담! 작가님은 정산만 신청
- 판매 여부 및 금액 자율 설정 (학부모 대상 원본 판매)
- 판매 수익금의 70% 정산으로 확실한 추가 매출 달성



학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개별 보안 계정 접속 | 데이터 암호화 | 저작권 보호용 자동 워터마크 | 시즌 완료 후 데이터 즉시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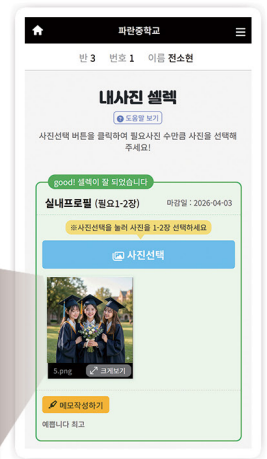
AI 이미지 보호 및 딥페이크 오염 방지 기술

동적 메타데이터 워터마킹

사진업로드시 사이트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삽입하여 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자동 워터마크 설정 기능

무단 유출된 파일 경로를 추적하고 캡처를 방어하여 원본 가치를 지킵니다.



신규 신청 특별 혜택! 'QR 촬영 보드판' 1개 무상 증정

문의 : 파란소프트 051-624-5075





돌빔의 웃음

전통 사방관(四方冠)을 머리에 얹고 금박 문양의 돌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음 짓고 있다. 불이 터질 듯한 탐스러운 미소와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새 생명이 세상에 내어놓는 가장 순수한 행복이 넘쳐흐르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덩달아 환하게 밝혀준다. 고풍스러운 전통 반단이와 청화백자 화병이 배경을 단아하게 받치고, 오색 돌잡이 물건들이 아이의 무릎 위에 소복이 놓여 한국 전통 돌잔치의 정겨운 풍경을 격조 있게 완성한다.



작가소개 강민정 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정회원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現 강연니사진들 대표



꽃보다 아이

분홍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돌쟁이 아이가 흰 향아리에 두 손을 얹고 고개를 돌려 활짝 웃음 짓는 찰나, 그 천진난만한 표정이 화면 가득 봄빛처럼 번져 나온다. 머리 위에 앙증맞게 얹힌 연지 땡기와 형광 분홍빛 한복의 생동감 넘치는 색채가 순백의 배경 속에서 한층 선명하게 빛을 발하며, 옆에 소담하게 펼쳐진 봄꽃 다발이 아이의 화사함을 더욱 포근하게 감싸 안는다. 꽃보다 더 환하고 꽃보다 더 향기로운 아이의 웃음이, 첫 돌을 맞이한 생명의 기쁨과 축복을 온 화면에 가득 담아낸다.

강민정 작가



여백에 피는 춤

여백 위에 손끝 하나가 길을 낸다.
붉은 치맛자락은 그 길을 따라 오래된 춤처럼 피어난다.



흘날리는 서약

흰 베일은 사랑이 지나온 시간처럼 길게 흩어지고,
붉은 장막 앞에 선 그녀는 주인공이 된다.



작가소개 류수민 작가

감동사진관 대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2016년 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Korea 작품상 수상
2015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Medal
2015년 대한민국 스타예술대상 <사진부문 수상>
2014년 제4회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사진작가부문대상

2013년 월간문학세계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다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상 수상

류수민 작가



백년의 약속

나는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의미를 전통의 형식에 담고 싶었다.
서로를 향해 밝히는 촛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삶의 증거다.
이 사진은 두 사람이 지켜온 약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소개 박용호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고문
現 파스텔스튜디오 대표



다시, 신부가 되다

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한 장면에 담고 싶었다.
젊은 날의 기억과 지금의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다시 마주한다.
이 사진은 사랑이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박용호 작가

오세희 국회의원 소상공인 정책 전달식

서울지회, 사진업계와 소상공인 현안에 관심과 연대 뜻 모아

좌회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사진 김영규 서울지회 감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지회장 신건정)는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통시장·소상공인·소공인·자영업자 정책 전달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희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소상공인 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정책 제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에서는 신건정 서울지회장,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김영규 서울지회 감사가 참석하여 사진업계 역시 소상공인의 한 축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4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정책 전달식에 참여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 단체 소개와 인사말, 정책 제안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은 "정책 제안서가 단순히 서랍 속 문서로 남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왼쪽부터 오세희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과 신건정 지회장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임대 및 영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행사 중에는 공공시설 임차상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발언도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와 생존권에 대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는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사진업계 역시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소상공인 산업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업종과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지회 관계자는 "사진관 역시 지역경제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 밀착형 업종인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과 현장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서로의 현실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지회

2026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춘계산행

광고산에서 회원 화합과 친목 다지는 뜻깊은 시간 가져

글·사진 수원시지부 주재기자 김영철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지부장 김성겸)는 지난 2026년 4월 18일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가족 동반 춘계산행을 수원 광고산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춘계산행은 광고BUS 종점을 출발해 광고산 중턱의 '절터'까지 오르는 왕복코스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과 가족들은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한 신록의 산길을 함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겨우내 굳어 있던 몸을 자연 속에서 풀어내며 건강한 웃음을 나누었고, 중간 쉼터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 간의 정겨운 대화가 이어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산행 이후 이어진 점심 식사 자리에는 오전 산행에 참석하지 못했던 회원들도 함께해 더욱 활기찬 교류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정주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후원금 전달도 이어지며 협회의 따뜻한 정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성겸 수원시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회원들과 함께 산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수원시지부가족동반춘계산행은 자연 속에서 회원 간 우정을 나누고 협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으며, 봄의 푸르름과 함께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www.fomex.co.kr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FOMEX®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풀림테크원 7층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우수기업
클로버 컴퍼니
INNOBIZ
기술혁신기업

45년 전통. 새로운 도약 다짐 “서울인상사진연구회”

離任 조규영 회장 · 就任 박성열 회장

| 글 임만준 서울지회 자문

| 사진 윤종성 자문

서울인상사진연구회는 지난 2026년 5월 16일 정기 월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조규영 회장의 이임과 함께 박성열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참석자는 조규영 고문, 박성열 고문, 이수부 자문, 윤택중 자문, 김정수 자문(송파), 윤종성 자문, 임만준 서울자문, 김이재, 설동현, 정찬수, 김인환, 김광호 12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인상사진연구회는 우리나라 인상사진 문화가 활발히 성장하던 1981년, 사진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김영삼 고문의 제창 아래 사진업의 쇄신과 인상사진 발전을 목표로 창립되었다. 당시 뜻을 함께한 서울 지역 사진업계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연구회는 이후 국내 인상사진 문화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연구회 창립 당시의 열정과 움직임은 전국 사진 단체들의 설립과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사진계 전반에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4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시대 변화와 산업 환경의 급격한 전환은 많은 사진업소의 도태를 가져왔고, 현재까지 업을 이어가는 회원들 또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사진업의 명맥을 지켜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연구회를 이끌어온 조규영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박성열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간 화합과 연구회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열 신임 회장은 “서울 인상사진연구회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상사진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구와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서울인상사진연구회는 이번 회장 이·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며, 변화하는 사진문화 속에서도 인상사진의 본질과 예술적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www.kappa.co.kr



▲ 왼쪽부터 이임사 조규영 고문, 취임사 박성열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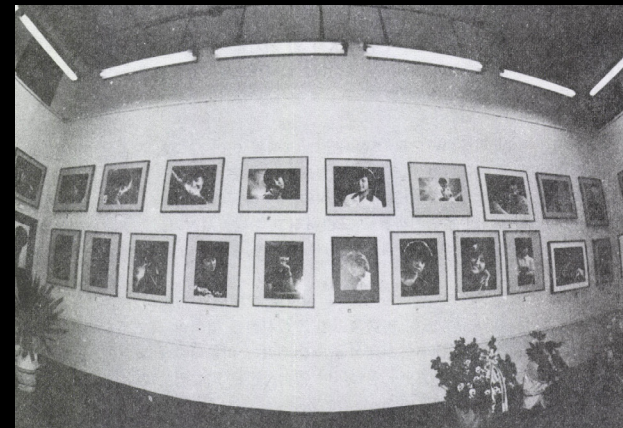
아래의 사진은 1982년 11월 사단지에 실린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사진전 전시회 및 회원 작품입니다.



제1회 전시회 개막식



제2회 전시회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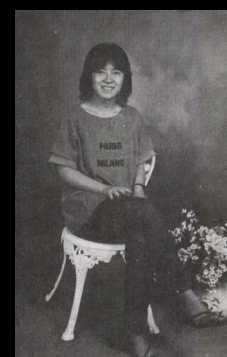
제1회 전시회 작품 전시



명동스튜디오 故김영삼 고문 작품



원갈라 사장 원봉식 작품



코덕 사장 조규영 작품



반도 사장 박성열 작품



서울스튜디오 정찬수 작품



사단 임만준 작품



사단 아리랑 사장 김이재 작품

www.kappa.co.kr

스튜디오 탐방

사진관은 가족의 역사를 정리해주는 공간

신라호텔 건너편 조용한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0년 넘게 카메라를 잡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청스튜디오 최병희 대표**다.

최 대표는 1990년대 초 강남에서 청스튜디오를 오픈했다. 웨딩 사진 전성기 시절, 삼성·현대·LG·효성 등 대기업 회장 가족들의 촬영과 자녀 결혼식 사진을 전문으로 진행했고, 수많은 연예인과 셀럽들의 사진을 촬영해온 국내 대표 하이엔드 스튜디오다. 하지만 지금 최 대표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의외로 ‘촬영’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사진을 책으로 남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 청스튜디오 전경

“핸드폰 사진은 결국 사라집니다”

인터뷰 도중 최 대표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요즘 사람들은 사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의 말처럼 지금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스마트폰 안에서 잊혀진다. 최 대표는 이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먼저 느꼈다고 한다.



“손주 사진이 매일 카톡으로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결국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고객이 촬영한 핸드폰 사진을 자동 분류·선별하고, 편집해 한 권의 고급 아트북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였다.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이미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 청스튜디오 촬영실

청 스튜디오 최병희 대표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진관은 이제 찍는 곳이 아니라 정리해주는 곳이 돼야 한다”

최 대표의 이야기는 단순히 앨범 제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사진관 산업 자체가 완전히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사진사가 찍는 사진만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이미 다 찍고 있어요. 그럼 사진관은 뭘 해야 하느냐? 고객의 사진을 정리하고 남겨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실제로 요즘 사진관들은 증명사진, 행사촬영, 저가 경쟁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의 휴대폰 속에는 오히려 엄청난 양의 ‘기억’이 쌓여 있다. 최 대표는 그 지점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었다. **“핸드폰 사진 몇 장 출력해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족의 역사, 부모님의 젊은 시절, 아이 성장 과정...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남겨줘야 해요.”**

“사진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결국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고객이 촬영한 핸드폰 사진을 자동 분류·선별하고, 편집해 한 권의 고급 아트북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였다.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이미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야 하잖아요. 근데 책이 떨어지고 망가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의 작업실은 단순 제작실이 아니라 하나의 R&D 공간에 가까웠다. 실 한 가닥, 본드 하나까지도 직접 테스트한다는 말에서 장인의 집요함이 느껴졌다. **“사진관도 충분히 돈 벌 수 있습니다”**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오히려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최 대표는 사진관들이 지나치게 ‘촬영’에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요즘 사진관 사장님들 중에 월 400도 못 가져가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고객은 이미 사진을 수천 장씩 가지고 있어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수익이 됩니다.”** 그는 실제로 사진관들이 고객의 사진을 받아 편집하고, 앨범 제작과 액자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과 템플릿 구조를 활용하면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작업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진관은 원래 사람의 추억을 다루는 직업이었잖아요.”** “결국 남는 건 가족의 기록입니다” 최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다. **“죽기 전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 가족 사진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오래된 앨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 아이들의 성장 과정... 결국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사진관이 단순 촬영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정리해주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네 사진관 사장님들이 사실은 그 동네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관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스튜디오의 작업은 단순한 앨범 제작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금 시대 사진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찍는 시대’는 끝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억을 남기는 일’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병희 대표는 지금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실현하고 있었다. 지금 방향을 잃은 많은 사진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학교앨범의 미래는 촬영을 넘어 플랫폼과 데이터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촬영 중심 시대를 넘어
디자인·데이터·사진 선택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학교 앨범 시장

학교 앨범 시장은 더 이상 ‘누가 더 잘 찍는가’의 경쟁이 아니다.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운영 전체의 효율을 설계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 미디어피아 김용우 대표

“촬영만 잘해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

촬영만으로는 한계인 학교 앨범 시장

미디어피아 김용우 대표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사진을 해온 포토그래퍼 출신이다. 현재는 학교 앨범 디자인 및 제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단순 제작을 넘어 시스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현재 학교 앨범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예전에는 촬영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운영 전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특히 학생 개별 사진 선택 과정은 현장 사진관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촬영보다 더 힘든 게 관리입니다.” 사진 분류, 학생 확인, 선택 과정, 수정 요청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촬영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포토그래퍼 출신 제작자의 시선

김 대표는 일반 인쇄업체와 포토그래퍼 출신 제작자의 차이를 “현장을 이해하는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을

직접 해본 사람은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압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경험해 왔고요.” 그는 디자인 작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진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학교 앨범은 단순 편집물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시간과 분위기가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에서도 단순 화려함보다 학교별 특성과 분위기를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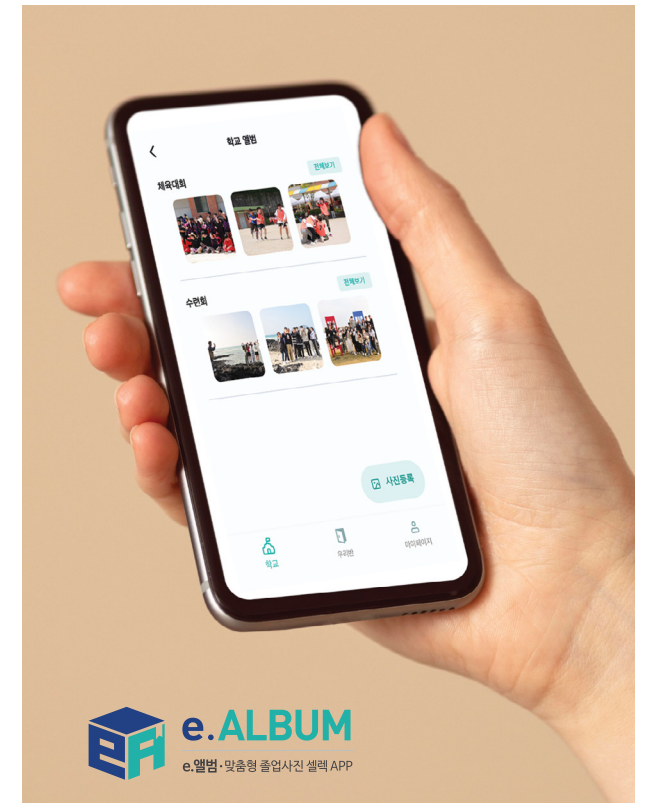
단순 촬영 수익만으로는 한계

김 대표는 학교 앨범 시장이 점점 수익 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전 방식으로만 운영하면 수익성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단순 촬영 수익 중심 구조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쇄물 영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앨범 외에도 다양한 인쇄물 제작과 디자인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단순 납품 구조가 아닌 결과물 중심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관들도 이제는 촬영 외 수익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앨범의 새로운 기준, eALBUM 사진선택 시스템

이번 탐방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미디어피아 김용우 대표가 개발하여 운영 중인 사진 선택(Photo Select) 시스템이다. 김용우 대표는 학교 앨범 제작 현장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진 선택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사진 선택 과정은 촬영보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사진 분류, 학생 확인, 선택, 수정 요청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피아의 사진 선택 시스템은 단순한 웹페이지 기반 서비스가 아니다. 학생 개인 인증을 통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본인 사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사진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또한 기존 업체들이 주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미디어피아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전용 앱(eALBUM)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사진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와 사진관은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현재 eALBUM 플랫폼은 사진 선택 기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졸업앨범, 졸업영상 서비스, 학급 커뮤니티 기능까지 통합 제공하고 있다. 졸업 후에도 학생들은 모바일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소중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촬영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보안, 사용자 경험까지 갖춘 시스템이 경쟁력입니다.”

AI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각’

김 대표는 앞으로 학교 앨범 시장이 단순 촬영 경쟁에서 운영 시스템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촬영 기술은 결국 상향 평준화됩니다. 중요한 건 운영 효율과 관리 구조입니다.” 특히 데이터 관리와 고객 응대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의 감각’이라고 강조한다.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흐름을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 앨범 산업은 지금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앨범 시장은 더 이상 단순 촬영 산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디자인, 데이터 관리, 고객 응대, 선택 시스템, 운영 효율이 모든 요소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김용우 대표의 고민은 결국 하나로 정리된다.

“학교앨범의 미래는 촬영을 넘어 플랫폼과 데이터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현장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추억이 계속되는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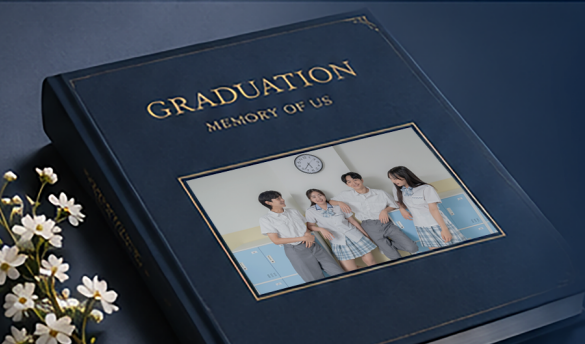
종이 앨범의 감성과
디지털의 편리함을 하나로

DIGITAL GRADUATION ALBUM



학생들의 웃음, 친구들과의 순간, 그리고 학교의 기억까지.
이제 졸업 앨범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추억”이 됩니다.

- 모바일 디지털 앨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감상
- 졸업 영상 탑재
졸업식, 학교 행사 등
영상 콘텐츠로
생생한 추억을
- 학급 커뮤니티 기능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소통하며
추억을 이어가는 공간
- 사진 선택 연동
편리한 사진 선택 시스템
연동으로 쉽고 빠르게
앨범 제작
- 안전한 보안 시스템
캡처 방지와 같은
안전한 보안 기술로
소중한 추억을 보호



PRINT × DIGITAL × MEMORY

인쇄의 가치와 디지털 경험을 함께 제공합니다.

- 학교는 더 편리하게
- 인쇄+디지털 통합 운영
 - 학생 만족도 향상
 - 최신 디지털 트렌드 대응
 - 학교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학생은 더 즐겁게
-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
 - 영상과 함께 생생한 추억
 -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결

MEDIA &

40년 이상의 사진·인쇄 제작 경험과
최신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 만나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한
새로운 졸업 앨범 문화를 만듭니다.

40+

40년 이상의
제작 경험

전국 학교
제작 경험 보유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www.mediapnp.co.kr

GANAPHOTO SYSTEM

사진/영상 장비의 모든 것

가나사진기구

스튜디오 구축부터 장비 설치, 사후 관리까지
촬영 환경 구축 토탈 솔루션

- 사진관 및 스튜디오
창업 제품 판매
- 사진조명 & 영상조명
설치 전문
- 전동 배경, 크로마키
설치 전문
- 사진 기자재
수리 전문



02.3675.6698

gana2000co@hanmail.net | www.gana2000.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길 21(돈의동) 2층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전성환 제주지회 고문의 감귤이야기

제주 농수산물, 가족 기반 생산 구조 속 신뢰 형성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어, 생산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성환 제주지회 고문은 “제주에서는 집안 단위로 감귤 농사를 비롯해 다양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 직접 생산과 관리를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가족 기반 생산, 제주 농수산물 신뢰의 기반

제주지역 농업은 대규모 기업형 생산보다 가족 중심의 소규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는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 고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먹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유통 중심 구조와는 다른 신뢰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감귤, 대표 농산물로 자리

제주 농산물 가운데 감귤은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감귤은 기후와 토양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로, 제주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고문은 “감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지역의 기후와 재배 환경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수확 시기와 관리 상태에 따라 맛과 품질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수확된 감귤이 당도와 식감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농산물·수산물, 계절에 따른 품질 차이 뚜렷

제주지역은 감귤 외에도 한라봉, 천혜향, 마늘, 당근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산물 역시 지역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갈치, 고등어, 옥돔 등은 제주를 대표하는 수산물로, 계절에 따라 품질과 맛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전 고문은 “농수산물은 시기에 따라 가장 좋은 상태가 존재한다”며 “제철에 맞춰 소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가격 경쟁보다 품질과 신뢰 중요

최근 농수산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수산물은 품질과 생산 과정 중심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고문은 “가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생산 과정과 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 단위로 생산되는 구조 자체가 신뢰를 담보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노지감귤(11월 출하)

협회 기반 소비 구조 필요성 제기

전성환 고문은 협회 내부 소비 구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같은 협회 구성원 간 생산된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이라며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 농수산물, 지역과 연결된 소비 필요

제주 농수산물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 구조가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단순한 상품을 넘어 지역과 생산자의 배경을 이해하는 소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 고문은 “제주 농수산물은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담고 있는 먹거리”라며 “지역과 연결된 소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치가 더욱 살아난다”고 말했다.





작가소개 김갑수 작가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이사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포토매니아 대표



水中仙境 수중선경

잔잔한 호수 위에 우뚝 솟은 기암괴석들이 수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중심 바위 위에 아담한 한국 전통 정자가 고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청명한 하늘과 흰 구름이 호수에 투영되어 천상과 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 개의 바위섬이 이루는 삼각 구도와 고요한 수면의 반영이 어우러져, 한국 산수화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옮겨놓은 듯한 절경을 완성한다.



斷崖 단애-깎아지른 절벽의 한자 표현

수직으로 깎아지른 주상절리형 암벽이 강변에 우뚝 서서 장대한 위용을 뽐내고, 그 정상을 울창한 노송과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활엽수들이 왕관처럼 감싸고 있다. 역겹의 세월이 새겨진 암벽의 거친 절리 문양과 부드러운 가을 단풍의 대비가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조화를 이루며, 강물 위로 드리운 절벽의 그림자는 화면에 깊은 중량감을 더한다. 좌측 하단의 전통 가옥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은은하게 암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유구한 한국 산하의 기개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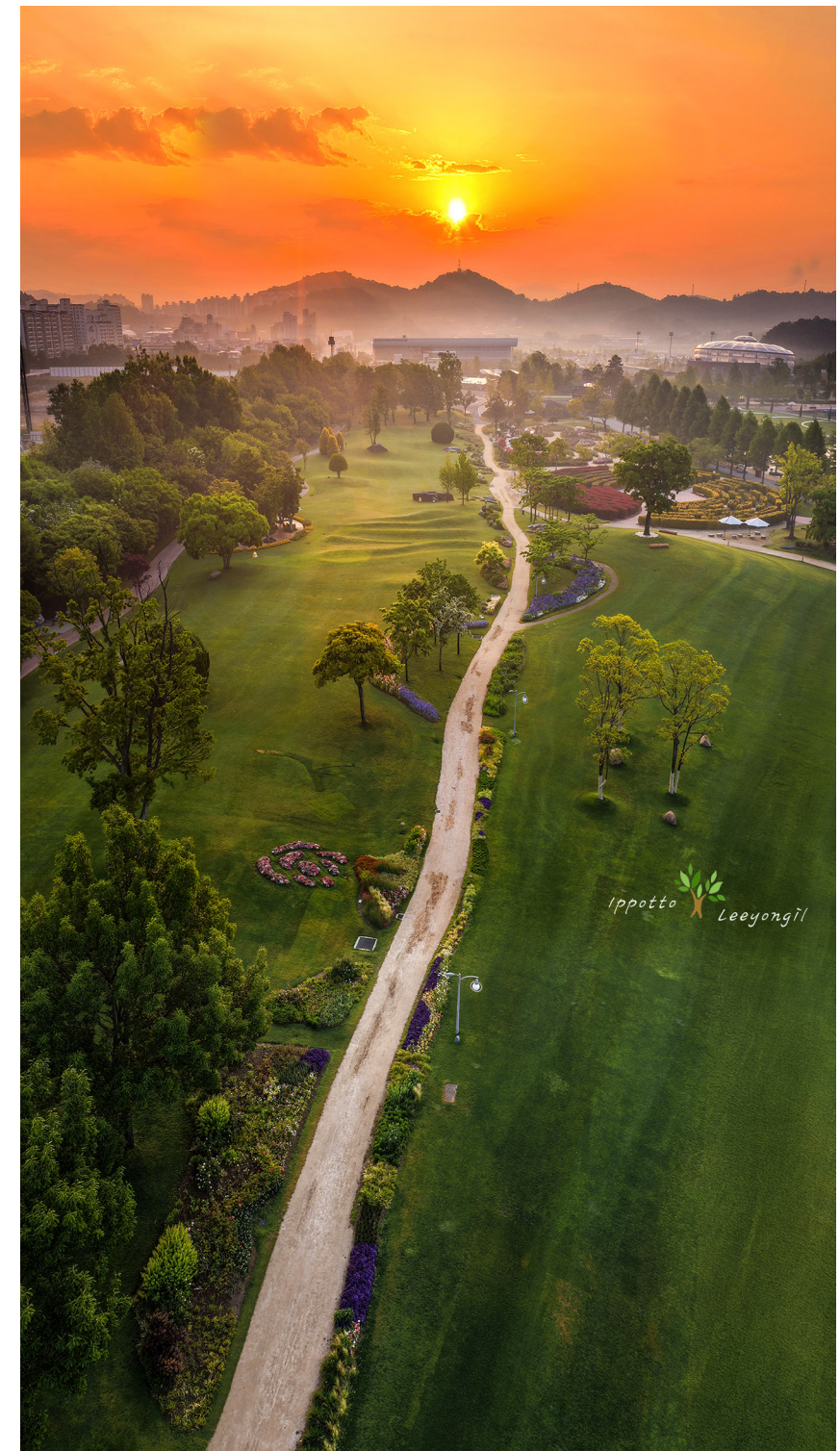
작가소개 **이용일** 작가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순천시 지부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라남도 지회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교류 이사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문화원 이사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39대 협회 감사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0298호 초대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 자문



松林群舞
송림군무

질은 해무(海霧) 속에서 굽이치고 뒤틀린 소나무들이 저마다의 몸짓으로 안개를 가르며 서 있어, 마치 살아 숨 쉬는 군상(群像)들의 군무를 보는 듯한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한다. 흑백의 절제된 화면 속에서 거칠고 강인한 수피(樹皮)의 질감과 안개의 부드러운 확산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수십 년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온 소나무들의 굴곡진 수간(樹幹)에서 꺾이지 않는 절개와 생명력이 느껴진다. 안개에 의해 원근이 층층이 분리되며 만들어지는 몽환적 깊이감이 이 숲을 현실 너머의 세계로 이끌고, 한국적 자연의 정수를 담은 한 폭의 수묵화로 완성된다.



都心紅焰
도심홍염

이른 새벽 드론으로 포착한 도심 공원의 전경이 타오르는 일출의 황금빛 속에 장엄하게 펼쳐진다.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화면 아래에서 수평선의 태양을 향해 뻗어 나가며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화면 깊숙이 이끌고, 양옆으로 펼쳐진 초록의 잔디밭과 색색의 꽃길이 주홍빛 하늘과 어우러져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황홀한 풍경을 완성한다. 안개에 잠긴 도시의 실루엣과 둥근 경기장 지붕이 배경 속에 아련하게 녹아들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대도시의 숨결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하게 공존하는 특별한 순간을 담아낸다.



작가소개 **이한우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 위원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대외협력 위원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감사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성남시 지부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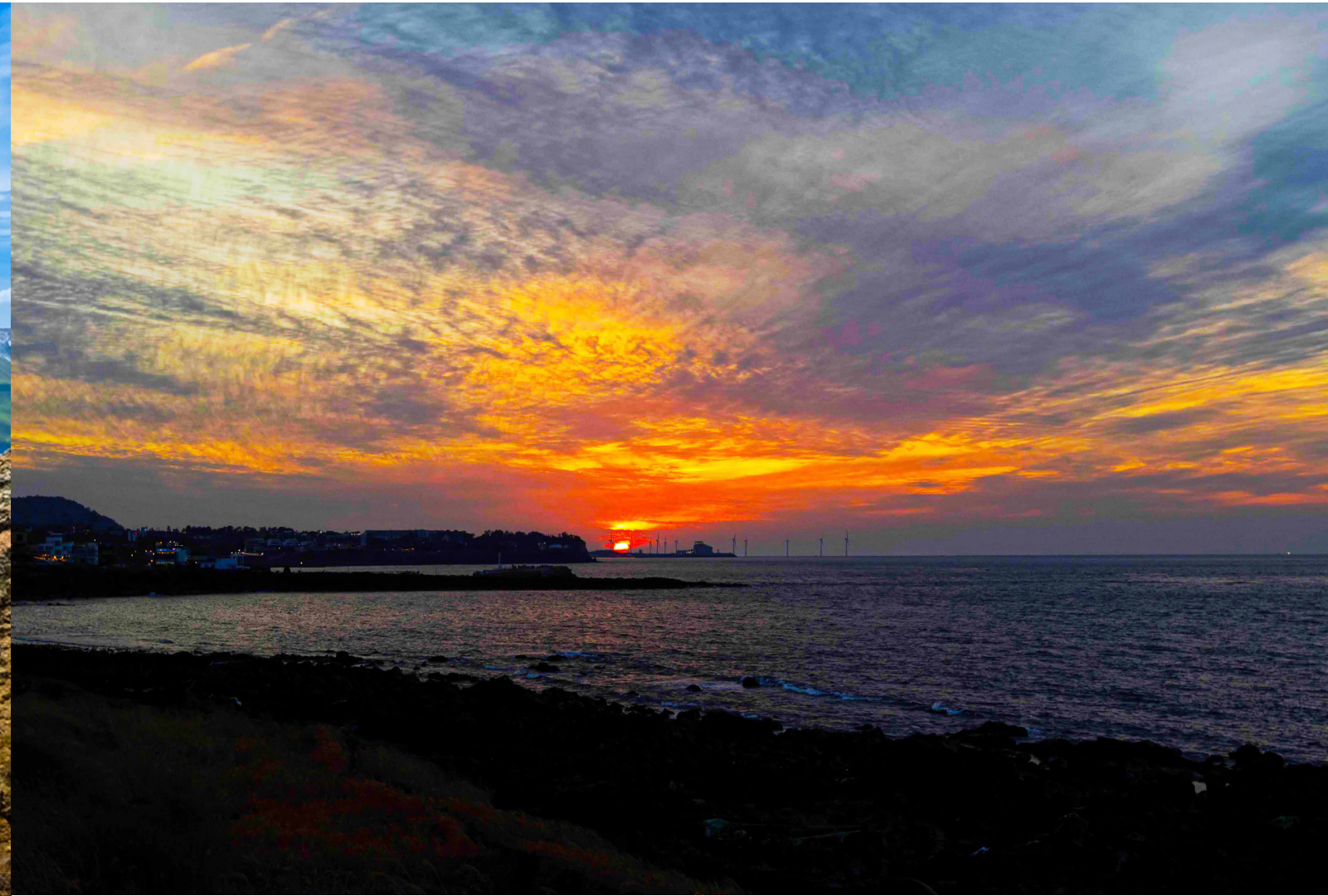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캐논촬영대회 금상 외 다수입상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촬영
 2021년 4.19혁명 세계전진대회 메인작가로
 2021년~2023년 대한민국을빛낸 13인대상 메인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 이사



天池碧潭

천지벽담-하늘 못의 푸른 물

백두산 정상에서 굽어본 천지(天池)가 코발트빛 심연을 고요히 품은 채 광대하게 펼쳐지고, 억겁의 세월이 새겨진 화산암 능선이 천지를 둥글게 감싸 안으며 장엄한 원형의 성역을 이루고 있다. 좌우의 거친 화산암 기암이 자연의 문처럼 화면을 에워싸고, 그 사이로 드러나는 천지의 쪽빛 수면과 능선 위 잔설(殘雪),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흰 구름이 층층이 어우러져 한반도 민족의 영산(靈山)이 지닌 숭고한 기운을 온전히 담아낸다.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이 천상의 공간에서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이,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백두의 위대함을 침묵으로 웅변한다.



함덕의 저녁노을

제주 함덕 앞바다의 수평선 위로 태양이 붉게 타오르며 지고, 그 빛이 하늘 전체의 구름을 황금·주홍·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장엄한 저녁 하늘을 수놓는다. 어둠에 잠긴 현무암 해안과 해안선의 실루엣이 화면 하단을 단단히 받치고, 수면 위로 번지는 불빛의 반영이 하늘과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불화(火畵)로 이어준다. 풍력발전기의 가는 실루엣이 현대와 자연의 공존을 은은히 암시하며, 제주가 품은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압도적인 색채로 완성한다.



작가소개 **이희춘 작가**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성남시지부장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64호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심사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現 스튜디오윤 대표



天光蓮池
천광연지

먹구름 사이를 뚫고 쏟아지는 성광(聖光)이 연꽃 가득한 호수 위에 내리꽃히며, 질푸른 연잎과 수면을 황홀한 빛의 무대로 변모시킨다. 탐스럽게 피어난 백련(白蓮)들이 드넓은 초록 연잎 사이에서 고고하게 고개를 들고, 좌측의 낮은 나룻배가 이 신비로운 풍경에 인간의 서정적 온기를 더한다. 안개에 잠긴 산줄기와 수면의 구름 반영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고, 빗물로 가득 찬 대지 위에 구름 사이 빛살이 내려앉는 이 찰나의 자연이 연출하는 가장 경건하고 장엄한 순간을 담아낸다.



南國春色
남국춘색

코발트빛 청명한 하늘 아래 노란 유채꽃밭이 대지를 가득 물들이고, 그 위로 이국적인 야자수 여러 그루가 나란히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솟아 있다. 남국의 야자수와 한국의 봄을 알리는 유채꽃, 그리고 멀리 정상에 흰 눈을 인 한라산이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한 봄 풍경을 완성한다. 청·황·백의 선명한 삼색 대비가 화면에 청량한 생동감을 불어넣고, 야자수의 리듬감 있는 배치가 드넓은 유채밭의 광활함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오너와 기사입장차이

홍보위원장 한장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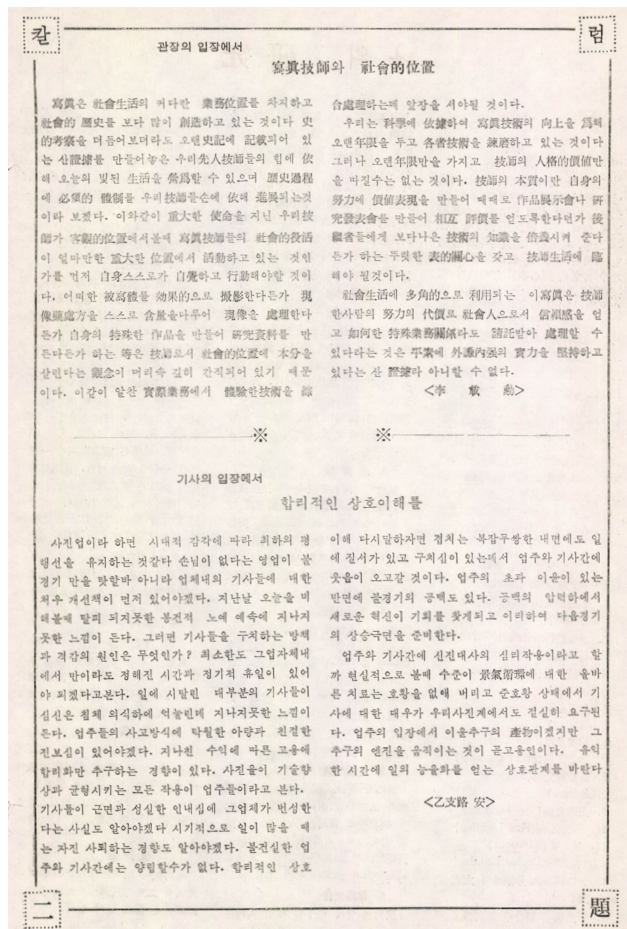
編輯者 註(편집자 주)

1967년 11월, 이 두 편의 글은 같은 지면 위에 나란히 놓여 사진판이라는 한 일터를 정면과 후면에서 비춘다. 한쪽은 업주(관장)의 시선이고, 다른 한쪽은 현장 기사의 시선이다.

이재훈의 글은 사진기사를 단순한 기능공이 아니라 社會的歷史(사회적역사)를 만드는 직업인으로 끌어올리며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강조한다. 필름을 손으로 현상하던 暗室(암실) 시대의 기술자상(像)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乙支路 安(을지로 안)의 글은 결이 전혀 다르다. 처우 개선, 정해진 근무시간, 정기 휴일을 요구하며 당시 업계 관행을 “봉건적 노예 예속”이라 직격한다. 주목할 대목은 景氣循環(경기순환)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끌어와 호황과 불황, 고용을 논한 점이다. 노동 조건을 감정이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낸 이 시각은 1960년대 사진계 기고문 가운데 상당히 앞선 것이라 할 만하다. 실명 대신 일터의 거리 이름(乙支路·을지로)을 앞세운 서명에서, 당시 현장 기사가 처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쉽지 않았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편은 직업적 자긍심과 노동 현실이 사진이라는 한 직업의 양면임을 1967년의 언어로 증언한다.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합리적인 상호이해”라는 제목 네 글자는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



관장의 입장에서

寫眞技師外(사진기사외) 社會的位置(사회적위치)

寫眞(사진)은 社會生活(사회생활)의 커다란 位置(위치)를 차지하고 社會的歷史(사회적역사)를 보다 많이 創造(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史的考察(사적고찰)을 더듬어 보더라도 오랜 史記(사기)에 記載(기재)되어 있는 산 證據(증거)를 만들어 놓은 우리 先人技師(선인기사)의 힘에 依(의)해 오늘의 빛된 生活(생활)을 營爲(영위)할 수 있으며, 歷史過程(역사과정)에 必須的(필수적) 體制(체제)를 우리 技師(기사)들 손에 依(의)해 進展(진전)되는 것이라 보겠다.

이와 같이 重大(중대)한 使命(사명)을 지닌 우리 技師(기사)를 客觀的位置(객관적위치)에서 볼 때, 寫眞技師(사진기사)들의 社會的役割(사회적역할)이 얼마만한 重大(중대)한 位置(위치)에서 活動(활동)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自身(자신) 스스로가 自覺(자각)하고 行動(행동)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被寫體(피사체)를 效果的(효과적)으로 撮影(촬영)한다든가, 現像藥處方(현상약처방)을 스스로 含量(함량)을 다루어 現像(현상)을 處理(처리)한다든가, 自身(자신)의 特殊(특수)한 作品(작품)을 만들어 研究資料(연구자료)를 만든다든가 하는 等(등)은 技師(기사)로서 社會的位置(사회적위치)에 本分(본분)을 살린다는 觀念(관념)이 머릿속 깊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알찬 實際業務(실제업무)에서 體驗(체험)한 技術(기술)을 綜合處理(종합처리)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될 것이다.

우리는 科學(과학)에 依據(의거)하여 寫眞(사진) 기술의 向上(향상)을 爲(위)해 오랜 年限(연한)을 두고 各者(각자) 技術(기술)을 鍊磨(연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年限(연한)만을 가지고 技師(기사)의 人格的價值(인격적가치)만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技師(기사)의 本質(본질)이란 自身(자신)의 努力(노력)에 價值表現(가치표현)을 만들어, 때때로 作品展示會(작품전시회)나 研究發表會(연구발표회)를 열어 相互(상호) 評價(평가)를 얻도록 한다든가, 後繼者(후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技術(기술)의 知識(지식)을 培養(배양)한다든가 하는 뚜렷한 目的關心(목적관심)을 갖고 技師生活(기사생활)에 臨(임)해야 될 것이다.

社會生活(사회생활)에 多角的(다각적)으로 利用(이용)되는 이 寫眞(사진)은, 技師(기사) 한 사람의 努力(노력)의 代價(대가)로 社會人(사회인)으로서 信賴感(신뢰감)을 얻고, 如何(여하)한 特殊業務關係(특수업무관계)라도 託(탁)받아 處理(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平素(평소)에 外謙內強(외겸내강)의 實力(실력)을 堅持(견지)하고 있다는 산 證據(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李載勳(이재훈)〉

기사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호이해를

사진업이라 하면 시대적 감각에 따라 최하의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 같다. 손님이 없다는 영업이 불경기만을 탓할 바 아니라, 업체 내의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먼저 있어야겠다. 지난날에 비해 볼 때 탈피되지 못한 봉건적 노예 예속에 지나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기사들을 구하는 방책과 격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소한도 그 업체 내에서만이라도 정해진 시간과 정기적 휴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다. 일에 시달린 대부분의 기사들이 심신은 침체 의식하에 억눌린 데 지나지 못한 느낌이 든다. 업주들의 사고방식에 타월한 아량과 친절한 진보심이 있어야겠다. 지나친 수익에 따른 고용에 합리화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진의 기술 향상과 균형시키는 모든 작용이 업주들에게 있다고 본다. 기사들의 근면과 성실한 인내심에 그 업체가 번성한다는 사실도 알아야겠다. 시기적으로 일이 많을 때는 자진 사퇴하는 경향도 알아야겠다. 불건실한 업주와 기사 간에는 양립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상호이해, 다시 말하자면 겹치는 복잡무쌍한 내면에도 일에 질서가 있고 인내심이 있는 데서 업주와 기사 간에 웃음이 오고 갈 것이다. 업주의 초과 이윤이 있는 반면에 불경기의 공백도 있다. 공백의 압력하에서 새로운 혁신이 기회를 찾게 되고, 이리하여 다음 경기의 상승 국면을 준비한다. 업주와 기사 간에 신진대사의 심리작용이라고 할까.

현실적으로 볼 때 景氣循環(경기순환)에 대한 올바른 치료는 호황을 없애 버리고 준호황 상태에서 기사에 대한 대우가 우리 사진계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업주의 입장에서 이윤추구의 產物(산물)이겠지만, 그 추구의 엔진을 움직이는 것이 곧 고용인이다. 유익한 시간에 일의 능률화를 얻는 상호관계를 바란다.

〈乙支路 安(을지로 안)〉

국가보훈증 사진 규격 안내

정확한 사진 규격으로 신속하게 발급을 받으세요.



국가보훈증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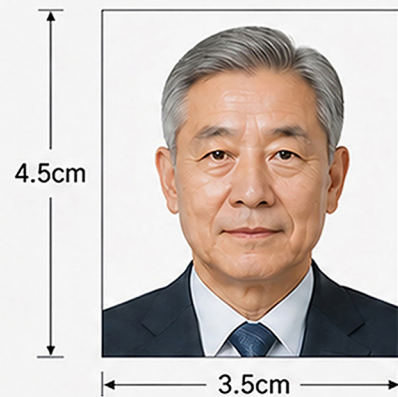
- ①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접수
- ③ 자격 심사 및 확인
- ④ 국가보훈증 제작 및 교부 (약 2~3주 소요)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 등
※ 세부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규격 안내



-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배경 : 흰색무배경
- 사진 인화 시 : 컬러 사진
- 얼굴 크기 : 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사이
- 온라인 접수 시 : 해상도 300dpi (50KB이하 JPG파일)
- 사진 편집 금지

세부 기준

	얼굴 방향	정면을 응시하여 촬영
	얼굴 크기	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사이
	표정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권장), 치아 노출 불가
	안경 착용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 (빛 반사 주의)
	모자 및 장신구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이어폰 등 착용 금지
	의상	양쪽 어깨가 나오도록 단정한 복장 착용 (제복 가능)

모델은 AI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만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

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꾸세요

종전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사용가능



실물



모바일

금융업무

병·의원등방문

인감증명서 발급

국내선 항공기 탑승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험응시(공무원 임용, 공인 외국어)

교체 대상

- ✓ 종전 15종의 보훈신분증 소지자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등)

• 종전 보훈신분증 15종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령제, 고령제2제),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체대군인증(장기·중기)

준비물

- ① 사진 1매(3.5cm×4.5cm 크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③ 종전 보훈신분증(반납 필요)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접속 신청
- 수령 시 본인 직접 보훈(지)청 방문 필요



정부 24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 ✓ 대리발급 신청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불필요

- ✓ 궁금하신 사항은 ☎ 1577-0606 으로 문의



국가보훈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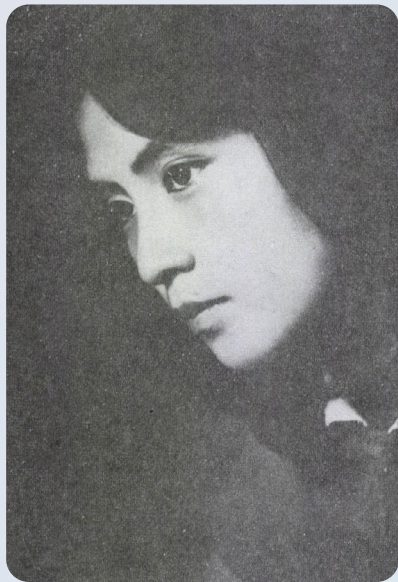


1982년 사진, AI로 다시 숨 쉬다

김영우 서울지회 부지회장, 원봉식 고문 작품 복원작업 과정

“포토샵과 AI 기술 결합... 옛 사진의 감성과 디테일 복원”
“사진 복원은 단순 보정이 아닌 기록을 되살리는 작업”

| 사진작업 김영우 서울지회 부지회장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01 원본>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김영우 부지회장이 본 협회 원봉식 고문이 1982년에 촬영한 인상사진의 복원 과정을 공개하며, 아날로그 사진과 AI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번 작업은 오래된 필름 사진 특유의 해상도 저하와 음영 손실, 디테일 부족 문제를 현대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02 포토샵 레벨조정>

김영우 부지회장은 사진의 상태를 분석한 뒤, 가장 먼저 포토샵 레벨(Level) 조정을 통해 기본 음영과 콘트라스트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원본은 해상도가 떨어지고 음영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값 조정을 통해 콘트라스트를 살리고 색 표현이 제대로 입혀질 수 있도록 먼저 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03 제미나이 작업>

이어 AI 이미지 생성 엔진인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해 컬러와 질감 복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초기 결과물에서는 실제 인물과 비율 차이가 발생하고, 눈 주변 표현이 지나치게 강한 스모키 화장 느낌으로 구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김 부지회장은 “AI가 원본 이미지를 완벽히 읽지 못하면서 실제 인물 느낌과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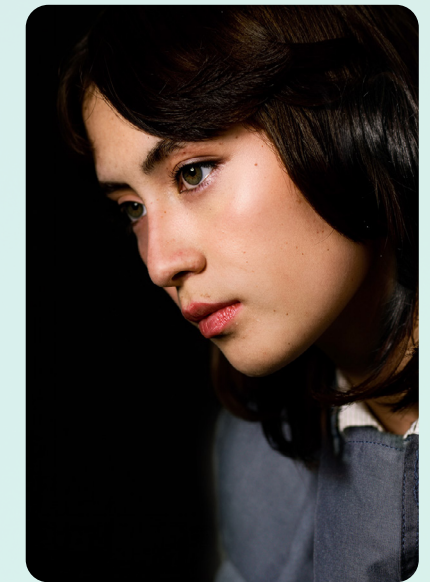
<04 플렉스 엔진 작업>

이후 또 다른 AI 엔진인 ‘플렉스(Flux)’를 활용해 재작업을 진행했다. 플렉스에서는 원본과 유사한 분위기와 피부 질감은 안정적으로 표현됐지만, 전통적인 인상사진 특유의 깊이감보다는 일반 프로필 사진처럼 보이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05 제미나이 2차표현>

특히 머리카락 표현과 목 주변 디테일이 부족해 보이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이에 김영우 부지회장은 제미나이와 플렉스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최종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06 완성>

(플렉스, 제미나이, 포토샵 합성)

플렉스의 피부 질감과 자연스러운 표현, 제미나이에서 보완된 인상사진 분위기를 포토샵 레이어 작업으로 합성해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 것이다.

“AI가 모든 것을 완성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자연스러운 마무리와 디테일 조정은 사람의 눈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번 복원 작업은 단순한 사진 보정을 넘어, 협회 선배 사진인들의 작품과 기록을 현대 기술로 다시 되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인상사진의 조명과 감성, 인물 표현을 현재의 AI 기술과 접목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우 부지회장은 앞으로 협회 선배 작가들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복원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전 선배님들의 사진에는 지금 다시 봐도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 복원이 아니라, 그 시대 사진의 감성과 철학까지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도 사진인의 감각과 경험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우 서울지회 부지회장은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좋은 작품을 복원하여 사단에 게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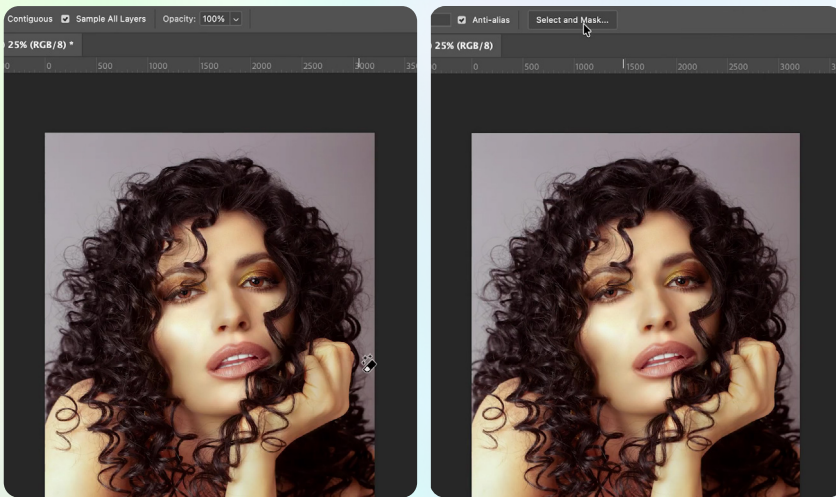
Ps

Photoshop 마스크헤어: 머리카락 제거 배경 제거(누끼)의 난제, 잔머리카락 완벽하게 살려내는 비법

| 글 조형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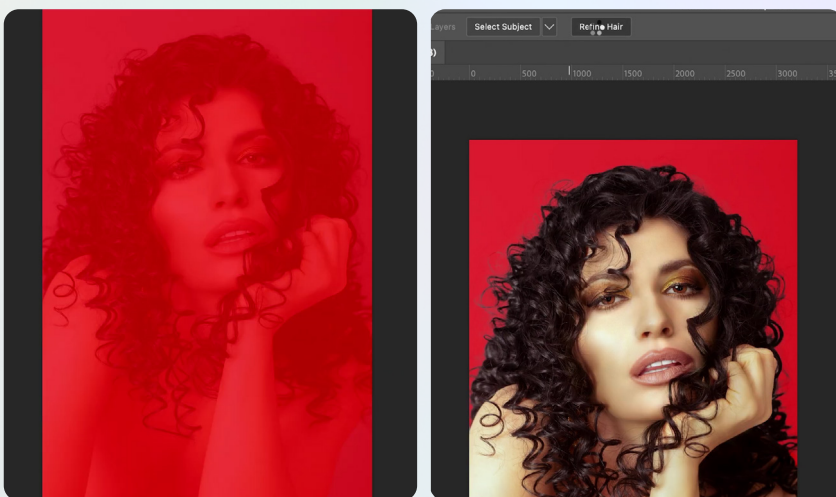
인물 사진 보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 누끼'입니다. 특히 바람에 흩날리는 잔머리카락이나 곱슬머리는 일반적인 선택 도구로 작업하면 경계가 어색하거나 뭉툭해집니다. 포토샵의 'Select and Mask (선택 및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 단 몇 초 만에 복잡한 머리카락을 배경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실전 팁을 공유합니다.

01 준비 및 기본 영역 선택



- 1 사진 불러오기 보정할 인물 사진을 포토샵에서 엽니다. 머리카락이 배경과 복잡하게 얹혀 있는 사진일수록 이 기법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 2 선택 도구 활성화 도구 바에서 Lasso Tool(올가미 도구)이나 object Selection Tool(개체 선택 도구) 등 아무 선택 도구나 선택합니다.
- 3 선택 및 마스크 진입 상단 옵션 바에 활성화되는 [Select and Mask] 버튼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작업창이 열리면서 보정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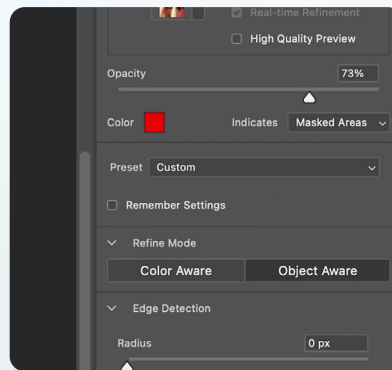
02 정밀 보정 및 디테일 살리기 (핵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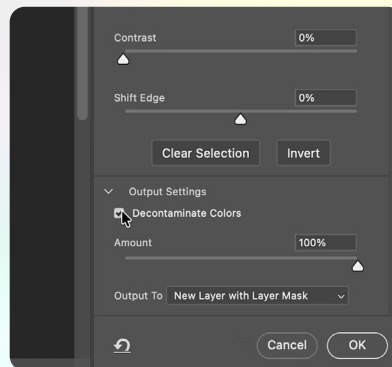
- 1 피사체 자동 인식 (Select Subject) 우측 속성(Properties) 패널이나 상단 바에서 [Select Subject]를 클릭합니다.
- 2 포토샵의 시가 인물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순식간에 파악하여 빨간색 (마스크 영역)으로 표시해 줍니다.

강좌 핵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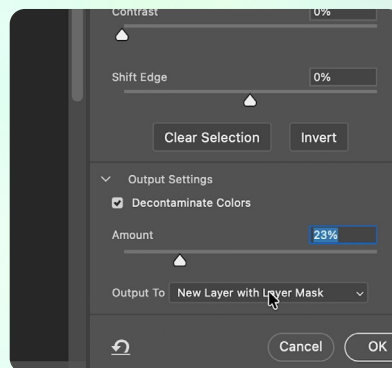
03 머리카락 다듬기(Refine Hair)



- 1 상단 메뉴의 [Refine Hair] 버튼을 누르세요. 시가 피사체의 외곽, 특히 머리카락의 미세한 틈새를 다시 한번 계산하여 배경을 지워줍니다.
- 2 색상 정화 (Decontaminate Colors) 배경의 색상이 머리카락 끝에 묻어 나오는 컬러 프링징(Color Fringing)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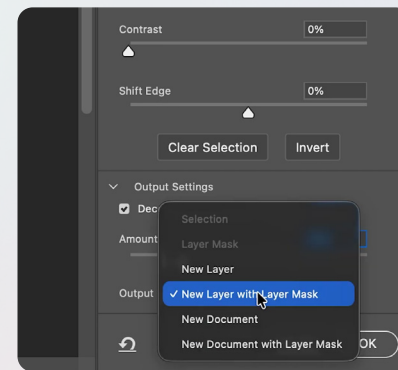


3. 우측 패널 하단의 [Output Settings]로 이동합니다.
- 4 [Decontaminate Colors] 체크박스를 활성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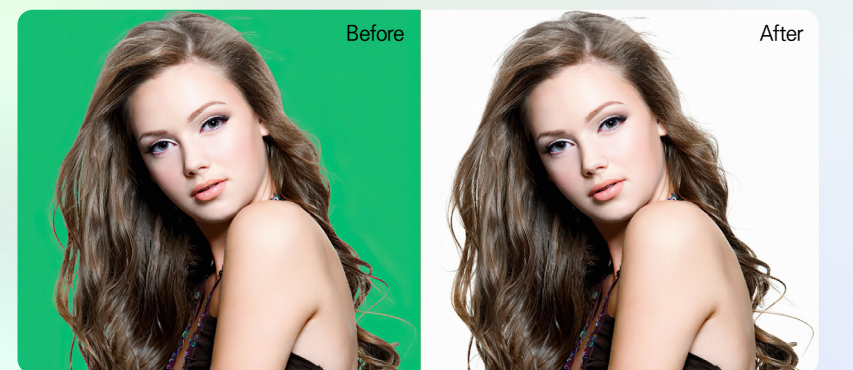


- 5 Amount 값을 20~30% 정도로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배경색 잔영을 제거합니다.

04 마무리 작업



- 1 최종 출력 (Output To) 설정이 끝났다면 Output To 옵션을 [New Layer with Layer Mask]로 설정하고 확인(OK)을 누릅니다. 원본 훼손 없이 깔끔하게 누끼가 따진 새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 2 새로운 배경 합성하기 인물 레이어 아래에 원하는 배경 이미지(단색, 풍경 등)를 배치해 보세요. 복잡했던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새로운 배경이 자연스럽게 투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배경과 섞여 답답해 보이던 지저분한 머리카락 원본
After-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디테일과 깔끔하게 합성된 결과물

마무리

이 방법은 속도와 정교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크 플로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펜 툴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따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조형준 포토샵 카페

HP: 010-5359-4247

<https://cafe.naver.com/retouch3>

인공지능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복제된 기술, 생성된 사유. AI와 함께 걷는 예술의 경계

오늘날 예술은 더 이상 작가의 손끝에서만 탄생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창작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술의 본질이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마주하는 ‘인식의 과정’에 있다면, AI는 현대 예술의 가장 강력한 사유의 촉매제가 됩니다.

설계자로서의 주권과 선택의 미학

창작자가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을 바탕으로 AI와 협업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원본 이미지를 제공하고, 거기서 추출된 프롬프트를 다시 변주하여 주제를 강화하는 행위는 철저히 인간의 의도 아래 설계된 ‘사유의 선택’입니다.

물론 마르셀 뒤샹이 현대미술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의 방식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것 없는 공산품인 ‘남자용 소변기’를 가져다 놓고 새로운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샘’이라는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디지털 결과물을 어떤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자신의 주제를 어떻게 확장할지 결정하는 주권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꿈의시선24-Ai(2026)’는 수중의 몽환적인 질감이나 빛의 굴절을 극대화하여 원래 주제의 시작점을 다시 찾아본 이 이미지 작업은 원본 이미지와 프롬프트로 완성된 생성형 AI의 산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카메라만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했던 꿈속의 경험을 AI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 2-꿈의시선24-Ai(2026)



사진 1-꿈의시선24

사진 1은 2022년에 촬영한 ‘꿈의시선24’는 물속에 잠긴 세상 속에서 마치 하늘을 날듯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중력이 제거된 세계를 헤엄치던 꿈을 표현한 연작 중 하나입니다. 이 연작의 주제는 여러 모델과 작업을 하며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 의미를 확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6년, 이 사진을 미드저니를 통해 프롬프트로 재가공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모방과 전이를 통한 예술적 경험의 민주화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향유자의 정서적 변화에서도 발견됩니다. 만약 어느 초등학생이 공개된 프롬프트를 자신의 사진에 적용해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 역시 일회적인 예술적 사건이 됩니다. 타인이 만든 언어(프롬프트)를 빌려 자신의 세계(사진)를 재구성해보는

창조와 변주: 사유의 층위 차이

다만, 여기서 우리는 원작자와수용자사이의 ‘사유의층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작자의 작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고,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프롬프트’라는 새로운 언어로 정립한 언어의 창조자로서의 예술입니다. 반면, 공개된 프롬프트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작업은 발견된 언어를 자신의

결론: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AI

결국 AI 작품이 예술인가에 대한 해답은 ‘기술의 비중’이 아니라 ‘AI가 인간 사유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AI가 던진 결과물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보지 못했던 세계를 인식하며, 깊은 정서적 파동을 겪는다면 AI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예술적 현상이 됩니다. AI는 창작자의 오리지널리티를 증폭시키는 비옥한 토양이며, 그 위에서 피어난 성찰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작업을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소비하는 행위로, 사유가 거세된 ‘기술적 공정’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인간 정신의 확장도, 존재에 대한 질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정에서 느끼는 기대와 두근거림,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한 감정은 그 무엇보다 순수한 예술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프롬프트는 창작자의 사유가 담긴 일종의 ‘발견된 오브제’이며, 이를 사용하는 이는 그 사유를 자신의 삶으로 전이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맥락에 대입해 감정적 울림을 만들어낸 수용과 변주로서의 예술입니다. 두 행위 모두 예술적 가치를 지니지만, 원작자의 결과물은 길을 내는 개척의 과정이며, 이를 활용한 결과물은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발견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반대로 AI가 사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예술의 범주에서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때 사진을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해 인간 정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깊은 정서적 울림을 사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여정을 주저 없이 예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이 글 자체도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AI창작물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미니와의 대화를 제미니에게 에세이로 써달라라고 했고, 세 번의 수정을 거쳐 지금의 이 글로 완성을 했습니다. 사진 작업에서 원본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변주했던 것처럼, 이 글에서도 필자는 최초의 생각을 재료로 삼아 AI와 함께 언어를 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자는 언제나 필자였으며, AI는 필자의 사유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였습니다. 이 에세이가 하나의 논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그 논지를 스스로 실증하는 글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글 이정훈 교육자격위원

칼라복원 — 1960년대 흑백사진

| 사진병원 김충식 대표

1950년대 손상된 원본 사진 (6 x 8cm)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80을 넘기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추억을 되살려드리고자 의뢰된 작업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흑백 증명사진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표면 곳곳에 균열과 손상이 있었으나,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칼라복원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의상 색상의 정확한 재현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색상이 제각각 달리 표현될 수 있으므로 2가지 색상 시안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선택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 사진의 경우, 질고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이 자칫 딱딱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오랜 세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AI 복원 기술과 사진가의 손끝을 거쳐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 가족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 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Canon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 승 호

사단지 원고 모집

1. 회원 농수산물 홍보 지원

- (가). 목 적: 회원 및 회원 가족, 지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 (나). 품 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지역 특산물 등
- (다). 원고작성: 사진 송부, 전화인터뷰, 원고작성 순으로 진행
- (라). 기대효과: 회원 간 신뢰 기반 직거래 활성화 및 협회 네트워크 강화

2. 회원 식당 홍보

- (가). 목 적: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교류 활성화 및 회원 업장 홍보 지원
- (나). 대 상: 정회원 및 가족 운영 식당 및 현재 휴회 중인 회원 운영 업장 포함
- (다). 원고작성: 대표 메뉴, 운영 철학, 지역 특색 등
- (라). 제출자료: 업장 사진, 메뉴 사진, 전화 인터뷰, 간단한 소개글.

3. 회원 스튜디오 및 사업장 탐방 인터뷰

- (가). 목 적: 회원 사진관 운영 사례를 기록 및 홍보 자료제공.
- (나). 대 상: 사진관, 영상·디자인·출판 관련 사업장 등
- (다). 제출자료: 운영 철학, 성공 및 변화 사례, 특화 서비스, 지역 활동 등

4. 기타 사항

- (가). 원고마감: 매월 20일까지(kppa1955@hanmail.net)
- (나). 필요시 사단지 편집부에서 기사형 원고로 재구성하여 원고 제작 지원.

-편집국장:한장훈 홍보위원장-

6월 사단지 퀴즈

1. 제34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 (KOBA) 참관 날짜와 요일은?
2. 국가보훈증 사진규격은?
3. 서울인상사진연구회의 출범년도는?
4. 작가제도위원회 제13회 초대작가·제32회 추천작가 학술세미나 및 촬영대회 개최장소는?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추첨을 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보내실 곳(협회메일): kppa1955@hanmail.net

www.kappa.co.kr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튼튼한 안전자산 노란우산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홍보대사
박미선

홍보대사
탁재훈



소득공제 연간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KBIZ 중소기업중앙회